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 변화 과정: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각 영역별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탐색

유 창 민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내, 학교 내,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과정과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총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344명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흘러도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 학교 사회적 자본은 증가하는 경향,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 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유형이 첫째 심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별, 학교 사회적 자본=없음;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구소득), 둘째 유지요인(가족 사회적 자본=가족구조; 학교 사회적 자본=형제유무, 가구소득;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성별, 성적만족도, 형제유무), 셋째 완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학교 사회적 자본=성별,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넷째 무영향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형제유무, 가구소득; 학교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가족구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족구조)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학교체제수준의 종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예측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요 용어: 결속형 사회적 자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잠재성장모형

이 논문은 2017년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연구논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투고일: 2018.1.8. ■ 수정일: 2018.3.12 ■ 게재확정일: 2018.3.2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수준과 정신건강의 국내외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지표 중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다양한 원인 중 1위가 ‘자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심각성은 국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행복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박종일 등, 2010; 통계청, 2015).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발달자산의 기능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Berkman, et al., 2014). 이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유창민, 2018; Jensen & Jetten, 2015; Parcel & Bixby, 2016; Raymond-Flesch, 2017; Yoo, 201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정의는 그 적용 범위와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원으로써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요소로 이루어져있다(Coleman, 1988; Putnam, 199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주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며, 긍정적 자존감은 향상시키고 부정적 자존감은 낮추주며, 자살생각과 행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창민, 강상경, 2015; 유창민, 2017; Ferlander, 2007; Yoo, Kahng, & Kim, 2017; Yoo, 2018).

그러나 현재 한국 청소년들은 건강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2011년 발표된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수준이 비교대상인 31개국 중에서 최하위라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나 동료와 잘 지내고, 문화적·사회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상대와 협조하는 능력”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통합, 다시 말해 소통과 상호작용이 고양하는 ‘도덕적 밀도’가 낮고, 긍정적 결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김두환, 우혜영, 2014).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발달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성준, 김주일, 2015; Ferlander, 2007; Sarason, et al., 1997; Yoo,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어떻게 긍정적인 매개, 조절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긍정적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했을 뿐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개인체계, 가족체계, 학교체계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못했다. 즉,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횡단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만을 확인했을 뿐 그러한 요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여러 가지 하위유형들(결속형 사회적 자본, 연결형 사회적 자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지 못했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란, 깊은 관계성과 신뢰성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족, 친한 친구, 가까운 친척 및 이웃들과 같은 동질적 그룹과의 관계성을 말한다. 반면 연결형 사회적 자본이란 깊이 있는 관계보다는 넓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있어서 유용한 관계성을 의미한다(Putnam, 2000). 이러한 하위유형의 사회적 자본 중에서 청소년기에 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에 대해 개념적 접근을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감소, 문제행동 예방, 자존감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Yoo(201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자본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 Jetten, 2015).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어떨하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과 낮추는 요인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족 내, 학교 내, 그리고 지역 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종단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생태체계이론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체계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자신이 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건강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심층적인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자본의 정의

가.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지난 20년 동안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특히 Pierre Bourdieu와 James Coleman, 그리고 Robert Putnam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김영미, 2008).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실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집합으로 상호 인식이 제도화되고 지속화된 관계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소속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는 각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야기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특정한 목적, 즉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관계나 구조, 관계망'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Bourdieu의 자원적 개념과 Coleman의 공동된 가치·신뢰의 개념을 기반으로 Portes(1998)는 '사회적 연결망 또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관계망, 규범, 사회적 신뢰'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Lin(2001)은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종합해보면, Bourdieu, Coleman, Portes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왜 유리하거나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초점을 두며 개인이 형성

하는 네트워크와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미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Putnam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은 사회 문화, 조직적 특성에서 파악하는 거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유석춘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들 중, ‘청소년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결속형 사회적 자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자본은 학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양하다. 이러한 학자들 중에서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갔다. 초기에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관계망, 규범, 사회적 신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깊은 관계성에 초점을 둔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넓은 연결성에 초점을 둔 ‘가교형 또는 연결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시켰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란, 깊은 관계성과 신뢰성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족, 친한 친구, 가까운 친척 및 이웃들과 같은 동질적 그룹과의 관계성을 말한다. 반면 연결형 사회적 자본이란, 이질적 그룹들 사이의 외향적 연결에 대한 것으로, 깊은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약한 관계성을 갖지만,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나 새로운 시각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다(Holland et al., 2007; Yoo, 2018). 이러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동질적 그룹과의 강한 유대감을 통해서 서로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으며 보호기능을 하지만, 동질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됨으로써 타 집단을 향해서 배타적이 되거나 고립되어 버릴 수 있다. 연결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또한 그 관계성이 지속되기 어렵고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Helliwell & Putnam,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유형의 사회적 자본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보다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것은 결속형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 중에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과

더 많은 관계가 있고(Ferlander, 2007; Yoo, 2018),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수준과 더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김두환, 우혜영, 2014).

다. 청소년기와 결속형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주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청소년기에 있어 긍정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처럼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접목시킨 연구자는 Coleman(1988)이다. Coleman은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정도 등 가족 내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학교, 지역사회 등 가족 외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먼저 가족 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 중 대표적인 것은 부모-자녀 관계이다(Coleman, 1988; Gatti & Tremblay, 2007). 부모와의 유대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 재정적인 지지, 그리고 생활지도 등에 기초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김영미, 2008). 다음으로 학교 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또래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자존감, 정서발달, 학업성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유창민, 2017; Crosnoe, 2004).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들이 이웃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도,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유대감의 정도, 그리고 지역사회 내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의미한다(김영미, 2008).

이처럼 청소년이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얻는 사회적 자본은 실제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Catalano와 그 동료들(2004)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긍정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문제행동이 예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2018)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중학교 2학년부 터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까지 총 6년간의 종단분석을 한 결과,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로 구성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 학업스트레스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원인요인으로써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이후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미(2013)는 이웃구성원에게서 느

끼는 친밀감과 신뢰감 등의 사회적 자원은 청소년이 이웃들로부터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심리적 안정감 및 정서적인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적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로 이웃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가. 생태체계적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은 생태학적이론과 일반체계이론이 합쳐진 관점으로, 인간은 사회 및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 행동 등이 형성되고 또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으로, 개인체계와 사회·환경체계를 구분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Germain & Bloom, 1999). Bronfenbrenner와 Crouter(1983)에 따르면 개인 또는 미시체계는 가족, 친구, 학교 등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중간체계는 부모와 친척 사이의 관계, 친구와 이웃 사이의 관계처럼 한 개인의 주변에 있는 개인 또는 미시체계 상호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또한 Bronfenbrenner(1995)는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들이 자녀에게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를 환경체계라고 하였다. 강상경(2011)에 따르면, 개인체계란 인간의 행동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요소 등을 의미하고, 사회·환경체계란 인간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고 속하게 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강상경, 2011).

이처럼 생태체계이론은 미시적 부분만 초점을 맞추는 다른 관점과는 달리 사회체계 전체를 포괄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해주고,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으로써 어떤 현상에 대한 역동적인 시각을 마련해주며, 개인과 환경 모두에 정책 및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허창덕, 2012). 이러한 관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과정에서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의 체계를 고려한 예측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유창민, 강상경,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및 사회·환경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나. 청소년기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생태체계적 관점(Germain & Bloom, 1999)에 기반하여 크게 개인체계, 가족체계, 그리고 학교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체계 요인으로는 성별, 자아존중감, 성적만족도 등이 있다. 백명자(2006)와 양정호(2007)는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여학생인 경우가 남학생인 경우보다 부모의 관심도와 친구친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혜련(2016)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 중 '신뢰'에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일수록 '신뢰'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장한(2016)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웃유대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로, 성별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정확한 종단적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노보람 등(2016)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또래애착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박성준과 김주일(201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의 발달과정과 그 예측요인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관계의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성적의 경우, 양정호(2007)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부모의 관심도와 친구친밀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과 사회적 자본이 주요한 관계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서현, 임혜림, 그리고 정익중(2015)은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체계 요인으로는 가족구조, 형제유무, 가구소득 등이 있다.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박성준과 김주일(2015)은 청소년의 가족구조가 양부모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관계의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현주와 그 동료들의 연구(2013)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조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형제유무와 관련하여, 양정호(2007)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의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노보람과 그 동료들의 연구(2016)에서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또래애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형제유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어떠한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구소득과 관련하여, 백혜영과 강현아(2016)는 빈곤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가족 외 사회적 자본, 그리고 행복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금주와 김수정(2012)은 빈곤한 가정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 보다 친사회성이 더 부족해서 또래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고, 하태정과 강현아(2013)는 빈곤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유대 정도와 사회적 통제정도가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게 될 확률이 높고 이것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탁장한(2016)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웃유대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체계 요인으로는 공동체의식, 그리고 학업과 관련된 학업성취지향관점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공동체 의식과 관련하여, Sarason(1974)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이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였고, 박수원과 김셋별(2016)은 집단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되는 소속감이나 유대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신재철(2011)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생애역량의 한 요소로서 협동능력과 시민의식을 추출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다. 박수원과 김셋별(2016)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관계와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는 학업성취지향관점이 있다. Yoo(2018)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수준이 학업스트레스나 경쟁적인 학업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학교 요인들 중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점’이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변 또래를 '경쟁자로 인식할 수도 있고 '친구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염혜선과 이은주(2015)는 청소년들의 학업 목표가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도전적인 숙제를 좋아한다와 같은 숙달접근목표를 가질 때 또래관계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업 목표가 '나의 목표는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다와 같은 학업적 수행접근목표를 가질 때 또래관계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학업성취지향관점을 갖는지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형성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표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예측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중 1차년도부터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겠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1차년도인 2010년도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방법을 통해 전국대표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1차년도 조사 중 가족, 학교,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모두 응답한 2,344명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인 부모-자녀관계는 해당 문항이 측정된 조사시점인 1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가족 외 사회적 자본 중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인 또래관계는 해당 문항이 측정된 조사시점인 1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가족 외 사회적 자본 중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인 이웃관계는 해당 문항이 측정된 조사시점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주요 변수

가. 종속변수: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 학교 내 사회적 자본, 그리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다. 먼저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깊은 관계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관계성(Putnam, 2000)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째,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가족 내에서 깊은 관계성과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계인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방식 척도 중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의미하는 '애정에 대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을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애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820, 4차년도 .805, 6차년도 .806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학교 내에서 깊은 관계성과 신뢰성을 가지는 관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계인 또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 때 교사관계는 배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발달시기상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Erikson, 1980) 일뿐만 아니라, 교사관계의 경우 또래관계보다 긍정적인 영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Yoo et al., 2017) 오히려 교사관계가 친밀한 것이 청소년들의 학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유창민, 강상경, 2015)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또래애착척도(IPPA) 중 신뢰에 대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을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752, 3차년도 .788, 5차년도 .817, 6차년도 .832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 관계인 이웃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 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ADD Health(Carolina Population Center, 2009)의 문항을 번안한 뒤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3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734, 2차년도 .730, 3차년도 .724, 4차년도 .720, 5차년도 .714, 6차년도 .717로 나타났다.

나. 예측요인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측변수는 크게 개인체계, 가족체계, 그리고 학교체계가 있다. 먼저 개인체계 요인의 경우, 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코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김지경 등, 2010). 자아존중감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인 5문항을 역코딩을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839이다. 다음으로 성적만족도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을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체계요인 중, 가족구조는 양쪽 부모님이 모두 계신 ‘양부모가족’과 편부모 또는 두 분 모두 안 계신 ‘비양부모가족’으로 나누었다. 양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는 ‘0’, 비양부모가족은 ‘1’로 코딩하였다. 형제유무의 경우 형제가 없는 경우는 ‘0’, 형제가 있는 경우는 ‘1’로 코딩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연간소득을 사용하였는데 편의를 예방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 때 기술통계분석을 위해서는 표본의 소득5

분위 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제 요인 중 공동체의식은 권혜원(2004)의 민주시민 의식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동체의식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을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731이다. 다음으로 숙달목적지향은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문항 중,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숙달목적지향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을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숙달지향목적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712이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먼저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모형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의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발달궤적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투입하여 초기값의 특징과 발달궤적의 관계를 추정하는 조건모형분석을 실시한다. 이 때 초기값의 요인적재량은 절편값에 해당하는 1로 고정 하였고, 변화율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선형일 것으로 가정하였다¹⁾.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종속변수에 따라서 측정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종속변수가 측정된 연도를 고려하여서 변화율이 1년 단위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모형의 성장모수는 '0, 3, 5',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모형의 성장모수는 '0, 2, 4, 5',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모형의 성장모수는 '0, 1, 2, 3, 4, 5'이다.

1) 잠재성장모형은 기본적으로 선형을 가정하고 있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차함수모형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1~6차 시점을 고려할 때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선형모형이 변화궤적과 예측요인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데 더 명확하기 때문에 선형모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중단분석에서는 결속값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결속값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결속값이 랜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각 종속변수의 차수마다 조사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를 '1'로 코딩하고 모두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해서 결속여부 변수를 새롭게 생성하였다. 그 다음 결속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예측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각 차수에서 결속이 한 번도 없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결속이 비체계적인 것을 의미하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면 그 변수의 결속은 체계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속패턴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예측변수와의 관계에서 결속패턴이 비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나 결속이 랜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정방법은 결속값을 고려한 후 분석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사용하겠다. 모형적합도 판단을 위해서는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값을 사용하되, 카이제곱값이 분석대상의 수와 모형복잡성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Tucker-Lewis Index (TLI), 그리고 Comparative Fit Index(CFI)를 사용하겠다. RMSEA가 .08미만일 때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TLI, CFI는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배병렬, 2014). 기술 통계분석에는 SPSS 21.0,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AMOS 21.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 기술통계

<표 1>과 <표 2>는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평균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나타났듯이, 성별은 남자 1169명(49.9%), 여자 1175명(50.1%)으로 남자와 여자가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양부모 가족은 2022명(86.3%), 비양부모 가족은 302명(12.9%)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2142(91.4%),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202(8.6%)로 나타났다. 연간가구소득은 표본의 5분위 분포를 계산하여 살펴본 결과, 1분위는 평균 1173.80만원(표준편차: 444.75), 2분위는 평균 2610.10만원(표준편차: 415.33), 3분위는 평균 3919.76만원(표준편차: 313.04), 4분위는 평균 5035.04만원(표준편차: 167.83), 5분위는 평균 8096.74만원(표준편차: 3061.54)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변수 | 구분 | 빈도 (%) | 평균 (표준편차) |
|-------------|-----------------------|-------------|-------------------|
| 성별 | 남자 | 1169(49.9%) | |
| | 여자 | 1175(50.1%) | |
| 가족구조 | 양부모 가족 | 2022(86.3%) | |
| | 비양부모 가족 | 302(12.9%) | |
| | 결측치 | 20(0.9%) | |
| 형제유무 | 형제자매 없음 | 202(8.6%) | |
| | 형제자매 있음 | 2142(91.4%) | |
| 연간가구소득 (만원) | 1분위: 0~2000 미만 | 336 (14.3%) | 1173.80 (444.75) |
| | 2분위: 2000 이상~3300 미만 | 548 (23.4%) | 2610.10 (415.33) |
| | 3분위: 3300 이상~4780 미만 | 443 (18.9%) | 3919.76 (313.04) |
| | 4분위: 4780 이상~60000 미만 | 351 (15.0%) | 5035.04 (167.83) |
| | 5분위: 6000 이상 | 534 (22.8%) | 8096.74 (3061.54) |
| | 결측치 | 132 (5.6%) | |

다음으로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적정분포를 나타내어 정규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치 및 정규분포성 검토

| 구분 | 사례 수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1 (중1) | 2344 | 3.00 | 0.65 | - 0.56 | 0.22 |
|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4 (고1) | 2103 | 2.98 | 0.55 | - 0.28 | 0.47 |
|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6 (고3) | 2051 | 3.02 | 0.56 | - 0.40 | 0.74 |
|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1 (중1) | 2344 | 3.03 | 0.63 | - 0.46 | 0.38 |
|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3 (중3) | 2250 | 3.16 | 0.56 | - 0.43 | 0.88 |
|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5 (고2) | 2085 | 3.21 | 0.53 | - 0.14 | 0.32 |
|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6 (고3) | 2051 | 3.18 | 0.53 | - 0.20 | 0.69 |

| 구분 | 사례 수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1 (중1) | 2344 | 2.83 | 0.57 | - 0.06 | - 0.07 |
|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2 (중2) | 2272 | 2.75 | 0.54 | - 0.04 | 0.05 |
|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3 (중3) | 2239 | 2.72 | 0.53 | - 0.02 | 0.37 |
|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4 (고1) | 2103 | 2.75 | 0.50 | 0.11 | 0.55 |
|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5 (고2) | 2085 | 2.73 | 0.49 | 0.01 | 0.64 |
|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6 (고3) | 2050 | 2.75 | 0.49 | 0.03 | 0.53 |
| 자아존중감 | 2344 | 2.79 | 0.51 | - 0.22 | 0.06 |
| 성적만족도 | 2271 | 2.26 | 0.81 | 0.13 | - 0.55 |
| 공동체의식 | 2344 | 2.76 | 0.60 | - 0.09 | 0.24 |
| 숙달지향목적 | 2344 | 2.71 | 0.74 | 0.00 | - 0.55 |

2.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무조건 모형 분석결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무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모형에 대한 무조건부 모형의 카이자승 값이 유의하였지만, 다른 적합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무조건 모형 적합도

| | χ^2 (DF, P) | CFI | IFI | RMSEA (90% CI) |
|-------------------|-------------------------|------|------|------------------|
|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 7.225 (df=1, P<.01) | .993 | .993 | .052 (.022-.090) |
|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 56.261 (df=5, P<.001) | .957 | .957 | .066 (.051-.082) |
|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 168.408 (df=16, P<.001) | .968 | .968 | .064 (.055-.073) |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모형의 발달궤적 평균과 변량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초기값의 평균은 2.993(p<.001)이고 변화율 평균은 .003(p>.05)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출발점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2.993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년 .003만큼씩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변화정도가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변화궤적의 초기값의 변량은 .156(p<.001)이고 변화율의 변량은 .004(p<.01)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발달궤적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007(p<.10)$ 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기에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증가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초기값의 평균은 $3.061(p<.001)$ 이고 변화율 평균은 $.030(p<.001)$ 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출발점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3.061 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년 $.030$ 만큼씩 증가하였다. 변화궤적의 초기값의 변량은 $.158(p<.001)$ 이고 변화율의 변량은 $.005(p<.001)$ 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발달궤적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016(p<.001)$ 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기에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증가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초기값의 평균은 $2.782(p<.001)$ 이고 변화율 평균은 $-.012(p<.001)$ 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중학교 1학년의 출발점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2.782 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년 $.012$ 만큼씩 감소하였다. 변화궤적의 초기값의 변량은 $.180(p<.001)$ 이고 변화율의 변량은 $.006(p<.001)$ 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의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발달궤적은 개인 간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017(p<.001)$ 으로 나타나, 초기에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감소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무조건 모형의 추정치

| | 모수 | 평균 | 표준편차 | 변량 | 표준편차 |
|-------------------|-------------|----------|------|----------------|------|
|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 초기값 | 2.993*** | .013 | .156*** | .018 |
| | 변화율 | .003 | .003 | .004** | .001 |
| |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 | | -.007(.004)† | |
|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 초기값 | 3.061*** | .012 | .158*** | .012 |
| | 변화율 | .030*** | .003 | .005*** | .001 |
| |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 | | -.016(.003)*** | |
|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 초기값 | 2.782*** | .010 | .180*** | .008 |
| | 변화율 | -.012*** | .002 | .006*** | .000 |
| |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 | | -.017(.002)*** | |

† <.10, *p<.05, **p<.01, ***p<.001

3.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조건 모형 분석결과

청소년의 가족 내, 학교 내,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부 모형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건부 모형의 카이제곱 값이 유의하였지만, 다른 적합지수들이 모두 수용 가능함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조건부 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표 5. 조건 모형 적합도

| | χ^2 (DF, P) | CFI | IFI | RMSEA (90% CI) |
|-------------------|-------------------------|------|------|------------------|
| 가족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 51.837 (df=9, P<.001) | .982 | .982 | .045 (.034-.057) |
| 학교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 111.527 (df=21, P<.001) | .966 | .967 | .043 (.035-.051) |
|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 | 346.787 (df=48, P<.001) | .951 | .952 | .052 (.047-.057) |

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결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체계요인 중 성별과 관련하여,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beta=-.029$, $p=.296$)과 유의한 관계가 없고 변화율($\beta=.076$, $p<.10$)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정도는 차이가 없지만,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학생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가 남학생보다 빨라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커졌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406$,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가 느려서($\beta=-.272$, $p<.001$), 중학교1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좋지만,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수준 차이가 감소하였다. 성적만족도와 관련하여, 성적만족도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beta=.042$, $p=.138$) 및 변화율($\beta=.023$, $p=.563$)과 관계가 없었다.

다음으로 가족체계 요인들 중에서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비양부모가족 학생이 양부모 가족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낮고($\beta=-.064$, $p<.05$), 가족구조와 변화율은 관계가 없어서($\beta=.030$, $p=.440$), 중학교1학년 때 비양부모가족인 학생이 양부모가족인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낮고, 비양부모가족 학생과 양부모가족 학생 간의 중학교 1학년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형제유무와 관련하여, 형제유무에 따른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beta=-.025$, $p=.354$)과 변화율($\beta=.057$, $p=.138$) 모두 관계가 없었다. 가구소득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beta=.033$, $p=.240$)과 변화율($\beta=.050$, $p=.214$) 모두와 관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계요인 중에서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184$, $p<.001$) 증가속도는 느려서($\beta=-.201$, $p<.001$), 중학교1학년 때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숙달지향목적과 관련하여, 숙달지향목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169$, $p<.001$),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가 느려서($\beta=-.166$, $p<.001$), 중학교1학년 때 숙달지향목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숙달지

항목적 수준에 따른 중학교 1학년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나.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결과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체계요인 중 성별과 관련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이 높고($\beta=.255, p<.00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가 느려서($\beta=-.305, p<.001$),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더 높지만 성별에 따른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정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407,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가 느려서($\beta=-.336, p<.001$), 중학교1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좋지만,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수준 차이가 감소하였다. 성적만족도와 관련하여, 성적만족도는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beta=.028, p=.305$)과 변화율($\beta=.054, p=.165$)과 관계가 없었다.

다음으로 가족체계요인 중에서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가족구조는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beta=-.024, p=.377$) 및 변화율($\beta=.041, p=.290$)과 관계가 없었다. 형제유무의 경우, 형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073, p<.01$), 형제유무와 학교 내 사회적 자본 변화율은 관계가 없어서($\beta=-.036, p=.347$), 형제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046, p<.10$)과 변화율은 관계가 없어서($\beta=.003, p=.937$), 중학교1학년 때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중학교 1학년 때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계요인 중에서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254, p<.001$),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의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가 느려서($\beta=-.197, p<.001$), 중학교1학년 때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숙달지향목적의 경우, 숙달지향목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113, p<.001$)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는 느려서($\beta=-.089, p<.05$), 중학교1학년 때 숙달지향목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숙달지향목적 수준에 따른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결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이 낮고($\beta=-.139, p<.001$)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변화율은 관계가 없어서($\beta=-.003, p=.927$),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고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정도의 초기값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이존증감의 경우, 자이존증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156, p<.001$), 자이존증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감소속도가 빨라서($\beta=-.104, p<.01$), 중학교1학년 때 자이존증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좋지만,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이존증감 수준에 따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수준 차이가 감소하였다.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073, p<.01$), 성적만족도와 변화율은 관계가 없어서($\beta=-.048, p=.127$), 성적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으로 가족체계요인 중에서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가족구조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beta=-.009, p=.713$) 및 변화율($\beta=-.028, p=.359$)와 관계가 없었다. 형제유무와 관련하여, 형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057, p<.05$), 형제유무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변화율은 관계가 없어서($\beta=.008, p=.800$), 형제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beta=.018, p=.448$)은 관계가 없지만,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가 빨라서($\beta=.062, p=.051$),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소득에 따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커졌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제요인 중에서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270, p<.001$),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의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감소속도가 빨라서($\beta=-.218, p<.001$), 중학교 1학년 때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숙달지향목적의 경우, 숙달지향목적의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beta=.084, p<.01$),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감소속도가 빨라서($\beta=-.110, p<.01$), 중학교 1학년 때 숙달지향

표 6. 청소년기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조건 모형 추정치

| 경로 | 가족 내 사회적 자본 | | | | 학교 내 사회적 자본 | | | |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 | | | |
|----------|--------------|-----------|-------|------|-------------|-----------|-------|------|---------------|-----------|-------|------|------|
| | B. | β . | S.E. | p | B. | β . | S.E. | p | B. | β . | S.E. | p | |
| 개인 요인 | 성별 → 초기값 | -.025 | -.029 | .024 | .296 | .208 | .255 | .022 | *** | -.119 | -.139 | .020 | *** |
| | 성별 → 변화율 | .012 | .076 | .006 | † | -.045 | -.305 | .006 | *** | .000 | -.003 | .005 | .927 |
| | 자아존중감 → 초기값 | .348 | .406 | .025 | *** | .329 | .407 | .023 | *** | .132 | .156 | .021 | *** |
| | 자아존중감 → 변화율 | -.041 | -.272 | .006 | *** | -.049 | -.336 | .006 | *** | -.016 | -.104 | .005 | ** |
| | 성적만족도 → 초기값 | .022 | .042 | .015 | .138 | .014 | .028 | .014 | .305 | .038 | .073 | .012 | ** |
| | 성적만족도 → 변화율 | .002 | .023 | .004 | .563 | .005 | .054 | .004 | .165 | -.005 | -.048 | .003 | .127 |
| | 가족구조 → 초기값 | -.031 | -.064 | .013 | * | -.011 | -.024 | .012 | .377 | -.004 | -.009 | .011 | .713 |
| | 가족구조 → 변화율 | .003 | .030 | .003 | .440 | .003 | .041 | .003 | .290 | -.002 | -.028 | .003 | .359 |
| | 형제유무 → 초기값 | -.039 | -.025 | .042 | .354 | .106 | .073 | .038 | ** | .087 | .057 | .035 | * |
| | 형제유무 → 변화율 | .015 | .057 | .010 | .138 | -.009 | -.036 | .010 | .347 | .002 | .008 | .008 | .800 |
| | 가구소득 → 초기값 | .018 | .033 | .015 | .240 | .023 | .046 | .014 | † | .010 | .018 | .013 | .448 |
| | 가구소득 → 변화율 | .005 | .050 | .004 | .214 | .000 | .003 | .004 | .937 | .006 | .062 | .003 | † |
| 학교 요인 | 공동체의식 → 초기값 | .133 | .184 | .022 | *** | .172 | .254 | .020 | *** | .192 | .270 | .018 | *** |
| | 공동체의식 → 변화율 | -.025 | -.201 | .005 | *** | -.024 | -.197 | .005 | *** | -.028 | -.218 | .004 | *** |
| | 숙달지향목적 → 초기값 | .099 | .169 | .018 | *** | .063 | .113 | .016 | *** | .048 | .084 | .015 | ** |
| | 숙달지향목적 → 변화율 | -.017 | -.166 | .004 | *** | -.009 | -.089 | .004 | * | -.011 | -.110 | .004 | ** |

† p<.10, *p<.05, **p<.01, ***p<.001

목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숙달지향목적 수준에 따른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1.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집단의 가족 내, 학교 내,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 내, 학교 내,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이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궤적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애정의 정도가 조금씩 증가하였지만, 그 변화정도가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어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궤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내 사회적 자본 궤적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였고 그 변화정도가 유의미하여서 학교 내 사회적 자본 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궤적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청소년들과 이웃의 관계가 조금씩 감소하였고 그 변화정도가 유의미하여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좋아졌으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빠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애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원상희, 2013),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노보람 등, 2016)와 유사하거나 일부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이웃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경향인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먼저 가족 내 사회적 자본궤적이 증가하는 하지만 그 변화정도가 유의하지 않아서 결국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결과와 학교 내 사회적 자본개척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기의 경우에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의 경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중요할 수 있지만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Yoo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7)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삶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가 있었는데,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지만 또래관계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건강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학업환경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Yoo(201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대학교 입시 시험을 전후로 해서 자신의 친구를 ‘경쟁자’ 또는 ‘라이벌’로 인식하면서 배타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환경에 대한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적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청소년들의 이웃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최근 도시화 특증 중 하나인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현상도 청소년들의 이웃관계개척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이웃관계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박승곤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사는 청소년 보다 군단위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가족과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관계와 정보를 얻을 수 있고(김동배, 조학래, 1997), 긍정적인 이웃관계를 통한 사회적 안정감은 청소년들의 활동범위를 넓힘으로써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를 한다(Duke, Borowsky, & Pettingell, 2012).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웃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도록 하는 요인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2. 주요 예측요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의 관계

예측요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에 대한 논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하위유형별(가족,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지 않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하위유형끼리 통합적으로 비교하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예측요인의 체계수준(개인, 가족, 학교체계)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가. 개인체계요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궤적의 관계

먼저 개인체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성별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 변화궤적과의 관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정도는 차이가 없지만,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학생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가 남학생보다 빨라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과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더 높지만 성별에 따른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정도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고 성별에 따른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정도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이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관심도가 더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양정호, 2007)와 유사하다. 이것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애정에 대해서 아들보다는 딸이 지각하는 애정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성별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서 친구친밀감이나 신뢰 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최혜련, 2016). 이 때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교 1학년 때 더 좋은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수준을 보이지만, 이후 남학생의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증가속도가 빨라서 성별에 따른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의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수준이 여학생보다 낮지만, 이후 여학생과 남학생의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수준이 비슷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초기에 남학생들이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반면,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러한 집단 내 차이가 이후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학생들의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이웃관계가 남학생보다 나쁘게 나타나는 것은 '신뢰'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혜련(2016)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신뢰'에 해당하는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웃과 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을 위해서는 여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편견, 두려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개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및 주변 환경이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 국가 또는 민간차원에서 '여자 청소년'에 보다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기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궤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1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좋지만,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1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좋지만,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1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좋지만,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모두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또래애착(노보람 등, 2016)과 사회적 관계(박성준, 김주일, 2015)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것은 가족 내, 학교 내, 그리고 지역사회 내 모두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을 할 때에 ‘긍정적 차원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차원의 자아존중감’ 각각에 대한 개별적이면서 동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유창민(2017)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차원과 부정차원으로 구분이 되고, 이 두 차원의 자아존중감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사관계와 소득이 있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건강상태, 부모의 과잉간섭이 있었다. 또한 긍정·부정 자아존중감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부모의 애정, 또래신뢰, 또래소외 등의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적인 하위요인 별로 개입한다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자아존중감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데, 이러한 감소가 단순히 평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통계적 회귀현상 때문인지 또는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실제로도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성적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궤적과의 관계에서, 성적만족도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과 변화율,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 성적만족도와 변화율은 관계가 없어서, 성적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좋을수록 부모의 관심과 친구친밀도가 높다는 기존연구결과(양정호, 2007)와는 다른 결과로서, 이것은 본 연구에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부모의 애정’이란 개념과,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신뢰’란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의 관심이 더 높을 수 있고 친구들이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할 수 있겠지만, 성적에 따라서 부모의 ‘애정’이 달라지고 친구의 ‘신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한 자녀에 대한 ‘애정’과 친구에 대한 ‘신뢰’는 성적이 좋거나 나쁜 것과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성적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성적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더 좋게 나왔다. 성적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이러한 상호관계성은 학습의 자기주도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김서현, 임혜림, 그리고 정익중(2015)은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학업성취뿐

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수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의 자기주도성은 학업성취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서현 등, 2015; 김종렬, 2014; Schunk & Ertmer, 2000). 김서현 등(2015)은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계성에 대해서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환경에 대한 대처, 적응, 상호작용 등에 정적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본 연구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성적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결국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서현 등(2015)의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대인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웃관계가 좋다는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만족도가 좋은 학생일수록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대처, 적응, 상호작용 능력 등이 좋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반대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인관계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및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거나 성적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대인관계의 정도를 점검하고, 건강한 관계형성을 위한 초점화된 개입이 필요하겠다.

나. 가족체계요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궤적의 관계

가족체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구조와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과정과의 관계에서, 가족구조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1학년 때 비양부모가족인 학생이 양부모가족인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낮고, 비양부모가족 학생과 양부모가족 학생 간의 중학교 1학년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와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가족구조는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과 변화율, 그리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가족구조가 양부모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남현주 등, 2013; 박성준, 김주일, 2015)와 유사하다. 이 때 가족구조가 영향을 주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하위유형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만 국한되었고,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배우자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발행하는 이중역할 및 경제적 빈곤 때문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양적인 시간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시간 또한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모의 관심과 지도감독을 덜 받는 상황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남현주 등, 2013). 또한 가족구조가 학교 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긍정적 또래관계의 형성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외현화와 내면화 문제를 완화하고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양부모가족인 청소년의 경우, 현재 돌보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주양육자에 대한 자녀관계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비양부모가족 청소년들의 양육자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얘기해준다.

둘째, 형제유무와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궤적과의 관계에서, 형제유무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형제유무에 따른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관계가 없었다. 형제유무와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형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 형제유무와 학교 내 사회적 자본 변화율은 관계가 없어서, 형제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유무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형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초기값이 높고, 형제유무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변화율은 관계가 없어서, 형제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게 형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노보람 등, 2016; 양정호, 2007)일부를 지지한다. 이 때 형제유무와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하위유형 중에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형제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의 관심도가 낮다는 결과(양정호, 2007)와는 다른 결과로, 부모의 관심도라는 의미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애정이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제가 많을수록 부모의

관심도는 분산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지만, 부모의 애정은 '사랑'이라는 특성으로써, 형제가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양적인 개념과 상관없이 똑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형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좋다는 연구결과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또래애착이 좋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노보람 등, 2016). 이것은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대인관계로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한 대인관계능력이 이후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가구소득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과정과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과 변화를 모두 관계가 없었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1학년 때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중학교 1학년 때 가구소득에 따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에는 가구소득에 따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없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소득에 따른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 자본이 가구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로, 빈곤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가족 외 사회적 자본, 그리고 행복도가 모두 낮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백혜영, 강현아, 2016)와 일치한다. 이처럼 가구소득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하여, 곽금주와 김수정(2012)은 빈곤한 가정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 보다 친사회성이 더 부족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또래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하태정과 강현아(2013)는 빈곤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유대 정도와 사회적 통제정도가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게 될 확률이 높고, 지역 환경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동인 경우, 사회적 관계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사회 환경이 열악할 경우 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충분한 자원을 얻고 지역사회 유대 및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어서 보다 활발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다. 학교체계요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궤적의 관계

학교체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공동체의식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궤적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1학년 때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과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의식이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신재철(2011)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생애역량의 한 요소로서 협동능력과 시민의식을 추출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재철(2011)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알기 위한 학습’ 뿐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학습’에 중점을 두으로써 남을 이해하고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과업을 수행하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숙달지향목적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궤적과의 관계에서, 숙달지향목적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1학년 때 숙달지향목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숙달지향목적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지향목적과 또래관계의 경우, 중학교1학년 때 숙달지향목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숙달지향목적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지향목적과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경우, 중학교1학년 때 숙달지향 목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좋고, 숙달지향목적 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숙달목적지향성이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숙달목적지향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 염혜선과 이은주(2015)는 학교에서 학업의 목표가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도전적인 숙제를 좋아한다’와 같은 숙달접근목표를 가질 때 또래관계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숙달접근목표를 지향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배우고 습득해야 하는 동기와 목적이 남에게 과시하고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것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어야 하겠다.

3. 결속형 사회적 자본 변화과정 예측요인의 4가지 유형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한 변화과정과 주요 예측요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집단 내 초기값 차이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첫째, 심화시키는 요인, 둘째, 그대로 지속시키는 요인, 셋째, 감소시키는 요인, 그리고 넷째, 영형이 없는 요인이다.

첫째, 집단 내 초기값 차이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은, ‘A라는 예측요인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중학교 1학년 때 결속형 사회적 자본 값의 집단 내 차이를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욱 커지게 하는 것이다. 심화유형의 예측요인은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위험 또는 보호요인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예측요인에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성별,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은 없음,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가구소득이 그러했다.

둘째, 집단 내 초기값 차이를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은, 'A라는 예측요인'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중학교 1학년 때 결속형 사회적 자본 값의 집단 내 차이를 이후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지속유형의 예측요인은 심화요인보다는 그 영향이 덜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초기값의 집단 내 차이가 그대로 유지될 만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예측요인에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가족구조,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은 형제유무, 가구 소득,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성별, 성적만족도, 형제유무가 그러했다.

셋째, 집단 내 초기값 차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은, 'A라는 예측요인'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중학교 1학년 때 결속형 사회적 자본 값의 집단 내 차이를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감소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이러한 감소현상은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통계적 회귀' 현상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집단 내 차이가 감소는 하지만 여전히 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위험·보호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집단 내 차이가 감소하는 이유가 단순한 통계적 회귀현상 때문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유형의 예측요인에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 목적;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은 성별,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이 그러했다.

넷째, 무영향 요인이란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이다. 이러한 유형의 예측요인에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성적만족도, 형제유무, 가구소득;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은 성적만족도, 가족구조;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가족구조가 그러했다.

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외모만족도, BMI,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고, 보다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변수와 종속변수는 그 인과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변수의

시변성을 고려한 연구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살펴보았지만, 연결형 사회적 자본 또한 어떻게 형성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결형 사회적 자본 형성과정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겠다.

유창민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및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리고 인천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건강불평등, 정신보건, 청소년복지, 장애인 복지, 행복이다. (E-mail: ycsjk@snu.ac.kr)

참고문헌

- 강상경.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나남.
- 김급주, 김수정. (2012).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 연구*, 9(3), pp.85-105.
-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동배, 조화래. (199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1, pp.147-170.
- 김두환, 우혜영. (2014).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삶과 자살생각. *사회와 이론*, 24, pp.369-400.
-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5). 학습의 자기주도성은 학업성취 이외에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복지연구*, 17(1), pp.305-332.
-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동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영미. (2008). 부정적 부모생활사건과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 사회자본, 부적응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4), pp.1-22.
- 김영미. (201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이웃사회자본의 조절 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pp.235-261.
- 김종렬. (2014). 내재적 동기, 학습전략, 수업참여 및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5(1), pp.93-113.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현주, 윤희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pp.129-168.
- 노보람, 박새롬, 이순형, 박혜준.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7(1), pp.149-177.
- 박성준, 김주일. (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7(3), pp.263-288.

- 박수원, 김셋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 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3).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역별 차이 분석. *청소년학연구*, 20(4), pp.199-224.
- 박종일, 박찬용,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pp.121-154.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백명자. (2006). *사회자본의 영향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백혜영, 강현아. (2016). 빈곤이 아동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4, pp.113-114.
- 신재철. (2011). *고등교육의 생애역량 모형 탐색과 개선 방안 :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교육종합연구*, 9(1), pp.80-102.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양정호. (2007). *한국초등학생의 사회적 자본*. *초등교육연구*, 20(1), pp.335-352.
- 염혜선, 이은주. (2015). *사회적 및 학업적 맥락에서의 유능감과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성취, 또래관계 질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2), pp.185-207.
- 원상희.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 자기통제의 종단적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 유창민, 강상경. (2015). *청소년의 자살생각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6, pp.25-54.
- 유창민. (2017). *우리나라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9, pp.25-58.
- 유창민. (2018). *Academic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Applying a Multi-Dimensional Stress Coping Model*.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최혜련. (2016).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탁장한. (2016). 소속동네의 빈곤이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 동네의 거주 불안정성 및 무질서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2), pp.5-30.
- 통계청. (2015). *청소년통계*. <http://kostat.go.kr>. 2017.11.20. 인출.
- 하태정, 강현아. (2013). 가족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0, pp.139-166.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허창덕 (2012).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분석. *재활복지*, 16(2), pp.57-80.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pp.427-454.
- Berkman, L. F., Kawachi, I., & Glymour, M. M. (2014). *Social Epidemiology 2nd edition*. Oxford press.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Westport: Greenwood Press.
- Bronfenbrenner. U. & Crouter. A. C. (1983).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Model in Developmental Research*. New York: Willey.
- Bronfenbrenner. U. (1995).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 by S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olina Population Center. (2009). *ADD Health*. <http://cpu.unc.edu/projects/addhealth>에서 2017.10.19. 인출.
- Catalano, R. F., Berglund, M.L., Ryan, J. A., Lonczak, H. S., & Hawkins, J. D. (2004).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pp.98-124.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5-120.
- Crosnoe, R. (2004). Social capital and the interplay of families and schoo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pp.267-280.
- Duke, N. N., Borowsky, I. W., & Pettingell, S. L. (2012). Parent perceptions of

- neighborhood: relationships with US youth physical activity and weight status.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6(1), pp.149-157.
-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Vol. 1). WW Norton & Company.
- Ferlander, S. (2007). The importance of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for health. *Acta Sociologica*, 50(2), pp.115-128.
- Gatti, U., & Tremblay, R. E. (2007). Social capital and aggressive behavior.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13(3-4), pp.235-249.
- Germain, C. B., & Bloom, M. (1999).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An ecological vie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lliwell, J. F. K., & Putnam, R. D. K.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 pp.1435-1446.
- Holland, J., Reynolds, T., & Weller, S. (2007). Transitions, networks and communities: the significance of social capital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Studies*, 10(1), pp.97-116.
- Hsieh, M. O., & Leung, P. (2009). Protective factors for adolescents among divorced single-parent families from Taiwan. *Social Work in Health Care*, 48(3), pp.298-320.
- Jensen, D. H. & Jetten, J. (2015). Bridging and bonding interactions in higher education: social capital and students' academic and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126.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Y: Cambridge.
- Parcel, T. L. & Bixby, M. S. (2016). The ties that bind: Social capital, families, and children's well being.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0(2), pp.87-92.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pp.1-24.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pp.35-42.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York: Simon Schuster.

- Raymond-Flesch, M., Auerswald, C., McGlone, L., Comfort, M., & Minnis, Alexandra. (2017). Building social capital to promote adolescent wellbeing: a qualitative study with teens in a Latino agricultural community. *BMC public health*, 17(1), 17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y sense of community: Prospect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Jissey-Bass.
- Schunk, D. H., & Ertmer, P. A. (2000). Self-regulation and academic learning: Self-efficacy enhancing interventions.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SanDiego, CA: Academic Press.
- Yoo, C. (2018).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onding Social Capital: Risk and Protective Role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Specific Situations in South Korean Adolescents. *Child Indicators Research*, 11(1), pp.245-261.
- Yoo, C., Kahng, S. K., & Kim, H. M. (2017).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Asian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7(1), pp.1-12.

The Process of Bonding Social Capital Formation in Korean Adolescents: Exploring Family, School,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Trajectories and Their Associated Predictors

Yoo, Chang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family, school,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dolescents.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volving 2,344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rom 2010, 2011, 2012, 2013, 2014, and 2015. Adolescent's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maintained with ti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 have increased with time,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de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bonding social capital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intensifi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non;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income), ② maintain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sibling existence, incom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③ allevia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④ non effec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inco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family structur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i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is needed for the formation of bonding social capital.

Keywords: Bonding Social Capital, Family, School, Community, Latent Growth Curve Model